보·도·자·료

대우통신

'코러스 프로넷 6000P'는 국내최초로 100Mbps 네트웍인터페이스 카드와 2.4기가바이트 SCSI HDD, 8배속 CD-ROM 드라이브 등을 장착, 동화상 등의 대형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어 인터넷 서버나 각급 학교의 멀티미디어 교육용 서버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Windows 95는 물론 Windows NT, Novell Netware, SCO-unix, OS/2등 다양한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사무실의 파일, 메일, DB, 그룹웨어의 서버로 활용할 수 있어, 대우통신은 향후 인터넷 서버 구축, 각급 학교의 멀티미디어 교실 구축, 사무실 단위의 네트웍 서버 구축 등에 영업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외산 PC서버들이 펜티엄 100-166MHz의 CPU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코러스 프로넷 6000P'는 펜티엄 프로 200MHz 및 180MHz의 CPU와 기본 32MB 메모리(최대 128MB)를 갖추고 기존의 외부 캐쉬 메모리에 비해 혁신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CPU내장 캐쉬 메모리를 채용, 빠른 속도와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3D애니메이션을 비롯한 CAD, 그래픽,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가용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보드보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안정성이 뛰어난 ATX보드를 국내 최초로 채용한 이 제품은 1280X1024 고해상도 모드에서 256컬러를 지원하는 PCI 방식의 그래픽 카드에 2MB 비디오 메모리를 장착하여 고화질, 초고속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그래픽 작업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그밖에 PCI 3개, ISA 3개, PCI 및 ISA 공용 슬롯 1개 등 총 7개의 확장 슬롯을 갖추고 있어 주변기기의 확장에 편리하고, 6개의 베이(BAY)를 갖추고 있어 HDD, CD-ROM 드라이브 등의 추가확장이 용이한 이 제품의 가격은 7백 92만원(부가세포함)이다.

이와함께 LCD 계기판을 통해 전화기의 작동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최대 16자리까지의 전화번호를 10개까지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 기능, 야간에도 전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다이얼을 채용하고 있다.

700국 사용방지 기능과 함께 인터컴 기능도 갖춰 일반가정에서는 물론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소 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휴대장치 1개와 부가세를 포함 25만원. 휴대장치 추가 1대당 12만원.

한편 지난 상반기에 11만대의 무선전화기와 26만대의 일반전화기를 판매한 대우통신은 올 하반기에 900MHz 무선전화기가 50%정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하반기에 총 16만여대의 무선전화기와 30만대의 일반전화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96년 전화기 시장은 무선전화기 260만대, 일반전화기 230만대 등 총 490만대 규모이다.

문의: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록 대리
/최병호(전화 589-2053/4)

보·도·자·료

대우통신

900MHz 유무선전호기 '아망떼 크린 900' 본격 시판

■ 플립형 휴대장치와 통화 가능거리 알림기능
■ 40개 채널, 잡음감쇄회로 채용 선명한 통화가 큰 장점
■ 휴대장치 최대 3개까지 연결 가능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은 **휴대폰처럼 사용하기 간편한 플립형(Flip:접이식)휴대장치**를 채택하고 **통화 가능거리 알림 기능**을 가진 900MHz 무선전화기 '아망떼 크린 900'(모델명 : DV-9054)을 본격 출시하고 시장공략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놀이터 등 가까운 외출지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900MHz 무선전화기 '아망떼 크린 900'은 통화가능 거리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려 쉽게 통화가능 거리를 알 수 있어, 외출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처럼 작고 가벼운 플립형 휴대장치를 채택, 주머니속에 넣어 휴대하기 간편하고 버튼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40개의 채널을 지원하고, 첨단 잡음감쇄회로(Compander IC)를 채용,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이 장점으로 꼽히는 이 제품은 휴대장치를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 대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이나 다층주택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기예보 버튼이 있어 한 번의 버튼 조작으로 일기예보를 알아볼 수도 있는 '아망떼 크린 900'은 전화기에 기상시간이나 약속시간 등을 입력해두면 시간에 맞춰 전화벨을 울려주는 모닝콜 기능을 채택함으로써 학생이나 회사원 등이 자명종 대신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대우통신 900MHz 유무선 전화기 '아망떼 크린 900'(모델명 : DV-5094)
휴대폰처럼 간편한 플립형 휴대장치를 채택하고 통화가능 거리를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려 통화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보·도·자·료

대우통신

대우통신, PC서버 시장 참여

- 펜티엄 프로 탑재 PC서버 출시 계기 -

- 고성능 펜티엄 프로 200MHz, 180MHz 탑재한 PC서버
- 최신 ATX 보드 규격 채택, 시스템 확장 용이, 안정성 향상
- 국내 최초 100Mbps 네트웍 카드 장착, 멀티데이터 처리가능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PC서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외산 일색인 국내 PC서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펜티엄 프로(Pentium Pro) 200MHz와 180MHz CPU를 채용한 PC서버 신제품 '코러스 프로넷 6000P' 2기종(모델명:CPC-6000P20, CPC-6000P18)을 출시하고 시장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95년 3백억원 규모를 보였던 국내 PC서버 시장은 올해 1천 2백억으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PC서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웍 구축확산 바람을 타고 인텔칩과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기반으로하는 PC서버가 기존의 유닉스 서버에 비해 범용성, 개방성, 호환성 측면에서 앞선 평가를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외산 제품들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PC서버 시장에 이번에 대우통신이 신제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PC서버 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3년부터 IBM社로부터 RS6000 모델을 DTC-4000이라는 자사 브랜드로 OEM 공급받아 국내 시장에 공급해 온 대우통신은 최근 미국의 중대형 컴퓨터업체인 데이터제너럴(Data General)社와 기술제휴를 맺은 바 있으며, 이번에 자체 개발한 PC서버 출시를 계기로 하반기에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신제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중대형 컴퓨터 시장과 PC서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통신 柳基範 사장과 한국 IBM의 吳昌圭 사장이 IBM의 RS/6000 시스템을 대우 브랜드로 향후 5년간 세계시장에 공급한다는 계약에 서명한 수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왼쪽 유기범 사장, 오른쪽 오창규 사장)

보·도·자·료

대우통신

대우통신, 국내최초 중대형컴퓨터 수출 나서

- IBM과 제휴, 대우 브랜드로 전세계시장 공략 -

■ PC에서 수퍼컴에 이르는 제품 라인업 완벽 구축
■ 대우가 진출한 유럽·CIS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본격 공략

대우통신(대표:柳基範)이 IBM과 중대형 컴퓨터부문의 전략적 제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계기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지난 93년 IBM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IBM의 RS/6000 계열의 시스템을 DTC-4000이라는 자사 모델로 국내시장에 공급해 온 대우통신은 지난 21일 이회사와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PC에서 중대형컴퓨터에 이르는 전모델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 이를 계기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한다고 밝혔다.

대우통신의 柳基範 사장과 IBM을 대표해서 한국 IBM의 吳昌圭 사장이 서명한 계약에 따르면 대우통신은 IBM의 RS/6000 20여개 전모델을 대우 상표로 공급받아 이를 오는 99년까지 전세계 시장에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계약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세계 시장에 IBM의 RS/6000 기종을 자사모델로 판매하게 된 대우통신은 먼저 유럽·CIS·아시아 등 대우그룹의 시장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우선 공략, 연간 1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이들 지역을 거점으로 시장을 넓혀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대우통신은 국내 컴퓨터 업계 최초로 PC에서 워크스테이션, 중대형 컴퓨터, 수퍼컴퓨터에 이르는 제품 라인업을 완벽하게 구축함으로써 그간 데스크탑 PC, 노트북 등의 단품판매 형태로 진행해 오던 해외 컴퓨터사업을 네트웍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SI사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우통신은 이번 IBM과의 전략적 제휴를 계기로 향후 이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내 SI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해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해외시장에서 겨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트북PC, 데스크탑 PC, PC서버, 중형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는 대우통신은 지난 85년부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데스크탑 PC를 수출, 현재까지 250만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는 노트북 PC를 중심으로 연 20만대의 컴퓨터를 수출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IBM과의 전략적 제휴로 중대형 컴퓨터까지 수출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문의:대우통신 홍보과 이정록 대리
/최병호(전화 589-2053/4)